

Wildflower Letter

들꽃편지 679

2025.8.23. 처서

<https://cyw.pe.kr>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며 뿌리이며 핵심입니다. 이 명제가 흔들리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福音)’입니다. 이 복음에 단 1%의 불순물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막장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도 죄인들이 달렸는데 오른쪽에 달렸던 죄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2-43)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인류 최초로 가장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고 1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처인 ‘낙원’에 들어가는 행운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 죄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최초로 믿은 사람입니다. 이로 보아 ‘회개하지 않은 죄’ 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좋은 날
함께라서
더 좋아

바깥이 없는 하나님

비록 유대인이 복음을 배척하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배척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 사전에는 ‘배척’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내쫓을 ‘바깥’이 없기 때문이다.

조상을 택한 것은 곧 후손을 택한 것이다.
조상과 후손은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미래, 현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후회’란 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
‘과거’가 없는 하나님께 ‘후회’ 또한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으신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70 천국은 실명제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건설 현장은 모든 것이 실명제입니다. 경비실 책임자도 실명제고 심지어 경비실에 옷을 걸어 놓으려고 벽에 못을 하나 박아도 이름을 써 놓아야 합니다.

조그만 농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매월 십이만원을 선교비로 오랜 기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시는 기회가 있어 시간을 내어 우리 농촌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시지 말라고 하여도 부득불 기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멀리 부산에서 충남 보령시 청소면의 교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농촌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보내 주시는 선교헌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말을 하였지만 어깨에는 거대한 힘이 들어가 우쭐거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벽에 못을 박다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게 니가 선교헌금 한 거냐? 교회 성도님들이 정성껏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천국에 상급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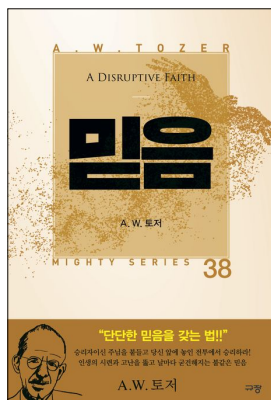
“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웁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믿음



토저 마이티 시리즈 38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320쪽 25,000원 규장 2025

“단단한 믿음을 갖는 법!!”
승리자이신 주님을 붙들고
당신 앞에 놓인 전투에서 승리하라!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뚫고
날마다 굳건해지는 불같은 믿음

1.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깨달을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시8:4)에서 ‘생각하시며(mimdful)’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늘 마음에 두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별난 점은 유독 인간에게 약하셔서 인류를 향한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2. 다섯가지 질문

인간이라면 반드시 자신에게 해야하는 다섯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①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②나는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③나는 누구인가? ④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⑤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무지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3.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아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육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적인 인간들이 육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로 된 도구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4. 믿음과 행위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는 행위를 주장했고, 바울은 믿음을 가르쳤다고 딱 잘라서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그런 신학 사조를 이어받은 현대의 교회들은 야고보파, 바울파로 나누어서 서로 논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행위와 믿음’을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다만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랐을 뿐입니다.

5.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창3:8) 그들은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 전체에 울려 퍼져 속량 받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음성이 마치 그러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6. 아브라함

하나님은 깊이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창15:12-16)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들은 것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은 모세와(출3:2)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들었고, 그분은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을 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과 표적과 상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8. 성경의 영감

하나님은 수많은 저자들에게 영감(靈感)으로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딤후3:16)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읽을 때도 영감으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들을 귀’라고 합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성경은 천년 동안이라도 ‘침묵’하지만 영감이 있으면 성경은 깊고도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9. 떠벌리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은 마치 ‘아나운서’처럼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떠벌립니다. 떠벌리기 위해서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모든 조언을 다 해 줄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목회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10. 주께 맡기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그 지성을 통해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올바르게 행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일단 그것을 힘써 살 가운데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1.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명령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 회심시키라’(마28:19)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회심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여정에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12.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명령은 ‘회심시킨 사람들을 가르치라’(마28:19)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말씀, 훈련, 징계, 기도, 교제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첫발을 떴으니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바를 할 해야 합니다.

13. 영혼의 양식을 먹고

거듭남은 ‘새 생명의 시작’이며, 생명은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화는 그 생명이 성령, 보혈, 말씀, 믿음, 기도, 훈련, 노력 그리고 환란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벧전2:2) 점점 딱딱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잘 소화시켜 영적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14. 아با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아빠’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슬슬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심히 슬퍼하시면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15. 놀이터와 전쟁터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놀이터’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전쟁터’입니다. 차를 타고 편하게 달리는 길이 아니라, 두 발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전쟁터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이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16. 도덕적 안식

하나님은 일을 마치신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안식은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하여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마음에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도덕적 안식’이라고 하며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17. 영적 안식

“장차 도래할 날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마주하겠는가? 무서운 심판 날에 내 마음에 죄가 있는 채로 저 빛나는 보좌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공의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내 도덕적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이러한 고민에 답을 찾은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을 ‘영적 안식’이라고 합니다.

18.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완전함(히6:2)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 즉,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19. 십자가 속죄로

영적인 완전함(히6:2)에 이르려면 신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인간을 더 나은 도덕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한한 교제를 회복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 어거스틴의 고백

어거스틴은 참회록(Confessions) 첫장에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은 우리가 영적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추진력입니다. (정리:최용우)

판단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

내가 모르는
말 못 할 사정이
그에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최용우 제10시집<일상의 기쁨>





일상 가운데 입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기쁨

최용우 지음
210쪽(울컬러) 13400원

최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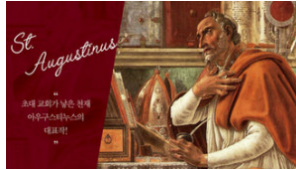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그머니 미소짓는
작은 사랑 이야기

일상의 사랑

최용우 지음
210쪽(컬러) 17000원 펴냄

행복한 천사와 비참한 천사



343. 인간은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1:26-27)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과 영혼을 주셨다.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런 지성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창2:7)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영혼을 만드신 것이다. 이를테면 그 숨이 사람 영혼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빼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도와 자녀를 낳게 하셨다. (창2:21-22).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344. 천사는 창조자가 아니다

아무리 하찮고 머지않아 죽어 사라질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창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믿거나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철학자들은 천사들을 거침없이 신이라고 부르는데, 만일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고 이 세계에서 창조를 한다 할지라도, 천사들을 생물의 창조자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곡식과 초목을 가꾸는 농부를 창조자라고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345. 오로지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본성과 형상의 창조자이다

사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두 가지 형상이 존재한다. 하나는 모든 물체적 재료가 외부로부터 더해지는 형상이다. 즉 용기장이나 대장장이, 그 밖의 장인들이 이런 형상을 쓰며 동물들의 신체와 닮은 형상을 그리거나 만든다. 또 다른 형상은 생명과 이성을 갖춘 어떤 존재에 깊숙이 숨겨진 의지 안에 작용인으로 있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형상은 물체나 신체의 자연 본성적 형상뿐 아니라 생명을 가진 영혼도 아직 살아있지 않은 때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유일한 장인, 즉 창조주이며 조물주인 하나님께만 귀속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세계와 천사들이 없을 때에도 세계 자체와 천사들을 만드셨다. -(계속)

진짜복음 가짜복음(1)



1. 거기까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막장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福音)'입니다. 이 복음에 단 1%의 불순물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어떤 죄악도 더는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짓는 죄에 대해 오히려 더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시7:12)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심판 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겔18:26)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이 세상은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이상 이 세상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게 하는데, 그럼 그런 죄를 어찌합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일괄적으로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

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यो’(행3:19)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눅13:1-5, 요일 1:9, 계2:5,...) (8133)

2.하나님 책임이 아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일괄적으로 싹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칼빈의 예정론자들은 자신(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옆에 서 계신 칼빈 선생님은 “나는 그런 예정론을 말한 적 없소.”라고 하실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말씀하신 예정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검색해보면 관련된 자료가 널려 있으니 스스로 확인)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미리 뽑아서 구원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딤후2:4, 벰후3:9)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거역과 거부로 구원받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못해서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히 많은 분이시므로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또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자동으로 씻어주고 속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죄 용서는 하나님의 선언이나 선포로 일방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여 회개할 때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한번 지은 죄는 마치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다만 그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예수 보혈로 덮어서 그 죄가 안 보이게 해 주시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히9:12-14) (8134)

3.회개의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습니다. 칼빈 선생이 ‘예정론’을 주장했다고 그 주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지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물을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므로(히9:25-26), 그분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기에 충분합니다.(히9:12-14).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예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할 생각이 없었다(?) 피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효능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영원 전(前)이나 후(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이나 ‘영원 전’이나 똑같은 한 순간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구원을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그렇게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다고 하는 신도들의 죄도 무조건 다 용서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니 ‘평안하다, 안심하라, 걱정마라’고 하지만, ‘회개’가 빠진 복음은 그것은 순도 100%의 ‘복음(福音)’이 아닙니다. 세례(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복음에 단 1%의 불순물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8135)

4. 다른 것을 믿는 교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논제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다 알면서도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속아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집중 공략하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했던 주장입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패륜적인 죄를 짓게 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역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구원론’으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구원파’는 아예 드러내놓고 영지주의와 같은 주장을 하고, 기존 교회들은 ‘교회’는 거룩(聖)하고 ‘세상’은 타락한 곳(俗)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고 교회 일은 다 거룩(聖)하다며 교회 안의 온갖 불의함을 덮고 있습니다.

교계 원로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기독교윤리실천운동)는 “내가 아는 한 한국 개신교는 세계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지금의 한국 교회 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되어 버렸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어긋난다.”〈시사저널1114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8136)

5. 초대교회의 믿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주후 2세기경 아리스티데스가 쓴 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겸손과 친절 그 자체이며 거짓이라고는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주저없이 나눴다. 그들은 나그네를 만나면 집으로 맞아들여 마치 친형제를 대하듯 대접하며 환대했다. 그들은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친형제처럼 환영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가난하여 장사 지낼 무덤이 없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자신들의 장례를 위해 준비해 놓은 무덤까지 내주며 장례를 치뤘다.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필요를 채웠다. 보석금으로 석방시키는 것이 가능할 때면 그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난한 자나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필품을 아끼고, 이를 또는 삼 일을 금식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

무엇을 믿진 진짜는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게 되어있습니다. 믿음은 뿌리이고 행동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허울 좋은 ‘말뿐’이고, 그리고 또 말뿐이고, 말로만 믿는 변종(變種) 믿음입니다. (8137)

6. 믿음의 착각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줄 알았던 ‘구원 받는 믿음’이 알고 보니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믿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후13:5)고 합니다.

쉬운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괄

호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괄호()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짜 믿음입니다. 괄호 안에는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갑 하나를 사더라도 그것이 진짜 통가방인지 이미테이션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은 왜 그 진위를 파악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잘 아는 분으로부터 평생 예수 믿고 장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좌지우지하던 어떤 장로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목사에게 속았어. 목사 이 새끼, 이리 와 봐. 너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 하면서 꼴까닥 숨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도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8138)

7. 가짜가 많은 이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친구가 “왜 기독교에는 그렇게 사이비가 많은지 모르겠소”라고 해서 제가 “그게 기독교가 진짜라는 증거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문방구에서 천원에 10알씩 파는 유리구슬은 가짜가 없습니다. 가짜 만들어봐야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석은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보석은 진짜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 속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온갖 가짜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도래할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류에게 전해진 최고의 소식이기에 ‘복음(福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마귀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미혹하는 자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무신론’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학문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종교를 총동원하여 하나님ی 없다는 무신론(無神論)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미혹하는 자 마귀의 또 다른 무기는 ‘유사 믿음(가짜 믿음)’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짜 믿음’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미혹합니다. 마귀는 ‘무신론’과 ‘가짜 믿음’을 양손에 들고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8139)

8. 종교가 아닌 기독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미혹하는 자 마귀는 ‘무신론’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다음 단계는 ‘믿음’에 다른 것을 덧씌워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라. 하고는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해서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지 ‘나는 기독교의 교주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있고 예식이 있고 윤리도덕이 있고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교훈이 있고 또 어떤 종교든 영적인 가르침이 있고, 그 종교에 세팅되어 종교적 활동을 이끄는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면 때로는 자신이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은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 마귀는 그런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이 뭔가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매우 보수적이면서 오직 율법을 공부하고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독사의 새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건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8140)

9. 종교를 믿는 실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교회를 몇십년씩 다니고 장로가 되고 헌금을 하고 성경공부나 기도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런 ‘종교 활동’을 믿음의 표징으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유도해 내는 일, 설득하는 일은 심리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유사 기독교 신흥 종교들이 번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 집회를 열고 수 많은 결신자들을 얻습니다. 그들은 그런식으로 교세를 늘려나갑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기로 결심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부흥/말씀사〉

‘조셉 열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딤후2:19),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행위로 그분을 부인한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안에 사는 것이 정말 회개한 것일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자들이나 기적을 행한 자들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쫓겨날 것이다. (마7:22-23)〉-〈돌이켜 회개하라/규장〉

단지 ‘예수를 믿습니다.’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말로 고백만 하는 사데교회나 라오다게아 교회를 토하여 내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계3:14-16)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전4:20)고 합니다. (8141)

10. 입술 구원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교회가 범한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는 ‘행위 구원’을 반대하기 위해 ‘입술 구원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토저(Tozer)’ 목사는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신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인은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도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개념은 현대 교회의 이단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단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교인들 사이에서 악한 결과를 심었다. 도움을 구하러 그리스도께 왔으나 그에게 순종하려는 의향이 없는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은 그의 주님 되심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신앙의 기초를 세워라/말씀사〉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입술 구원론’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로마서10:10절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시인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고 하셨습니다. (8142) -다음호에 계속 ©최용우



아저씨 커피 (사진:최용우)

더할 나위 없는

공주우체국 앞 다리 옆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커피집이 있다. 커피가 맛있는 아저씨 커피, 소박한 간판을 닮은 아저씨가 주문하면 산미 정도를 물어봐 주시고 직접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내려주신다.

직화커피이며 2층도 있다. 내 기억으로 떡볶이 가게가 있었던 자리인데, 언제 커피가게로 바뀌었지? 카페라고 부르기보다 '가게'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은 감성 카페이다.

장사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 아저씨가 굉장히 열심히 커피를 내려 주시고 자근자근 말도 걸어 주신다. 나도 저런 자리에 저런 규모 정도의 작은 '최용우 책방'을 하고 싶다.

오는 사람들과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나쁜 오후를 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다. 분명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고 치열할 게 뻔하지만,

공주 페스티벌

공주는 인구가 10만명 정도 되는 작은 시인데, 과거에 백제의 수도였고 충남도청 소재지가 있었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도시이다. 그래서 그런지 4계절 끊임없이 축제와 공연과 전시와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아내와 함께 주말 저녁에 어디 갈까 하다가 공주에서 열리는 제민천 ‘공주 페스티벌’에 갔다. 공주(Princess)컨셉의 야간관광 콘텐츠이다. 아이들이 공주 옷을 입고 야간 퍼레이드, 플리마켓, 공연 등등 사람들이 무더운 저녁 밖으로 나와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산성시장에서는 ‘밤마실’이 열린다. 금강변에서는 ‘백제대축제’가 열린다.

우리나라에 내가 살아보고 싶은 동네가 두 곳 있는데, 그곳은 전주와 공주. 그런데 나는 지금 인구가 거의 40만명에 육박하는 도시인데 저녁에 밖으로 나갈 곳이란 곳도 없는 삭막한 동네인 세종시에 살고 있다.

일상 시집 시리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여’(신30:9) 말을 하려면 입이 있어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다. 형상 자체가 없는 분이시니 ‘입’이라는 것이 있을 리 없다. 그럼 인간들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어떻게 ‘청종’한단 말인가?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제각각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꿀벌들도 개미들도 상어와 돌고래도 특별한 전파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꽃이 벌이나 나비를 부르는 것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입은 없으시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 자연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일상’을 통해서 듣는다. 그리고 시(詩)라는 형식으로 기록한다.



다시 비가 온다

일기예보를 보니 이번 주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오전 오후가 모두 비(雨) 표시가 되어있다. 정말 그렇게 5일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린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비가 ‘온다’고 한다는데, 아마도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에서는 비는 맞이해야 할 귀한 손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비님이 오신다’라는 시를 쓴 적도 있다.

마당 화분의 베고니아 화분 잎사귀에 빗방울 물방울이 조롱조롱 달려 있는 사진을 찍었다. 토란잎이라면 가운데로 모아져서 도르르르 굴러가버리겠지만 베고니아 잎사귀엔 그런 기름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고양이 이소

어제부터 학산빌라 어디쯤에서 새끼 고양이가 나오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엄마를 찾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자기를 데려갈 사람을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는 육묘기간에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두세 곳 이상의 은신처를 두고 이소를 한다.

이소를 하는 과정에서 새끼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새끼를 데려갈 만한 사람을 찾아서 슬쩍 놓고 가기도 한다.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가 있다면 주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미를 볼 수도 있다. 만약 어미를 발견하면 “새끼를 줘서 고마워. 잘 키울게” 하고 말해주면 어미 고양이가 안심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킬러 고양이들에게 희생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 고양이를 찾아 학산빌라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존재가 나 말고 또 있었다. 저 큰 고양이는 우리 동네를 배회하는 킬러 고양이이다.



혈압 체크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책상에 앉아 ‘혈압’을 잰다. 몸이 일어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아침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모닝 서지(Morning surge)’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혈압이 얼마인지 봐야 한다고 의사가 아침 혈압을 재라고 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혈압을 재서 기록하는데, 전날 먹은 음식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는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짠 음식을 먹으면 여지없이 다음날 아침 혈압이 높아진다. 토끼처럼 얇전하게 풀을 남남 먹은 날은 혈압이 낮다.

먹음식(食)자는 사람인(人)과 어질양(良)이 합쳐진 글자이다. 먹는 것은 사람을 어질게 한다는 뜻인가? 앎튼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라는 뜻인 것 같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성격도 바뀌고 혈압도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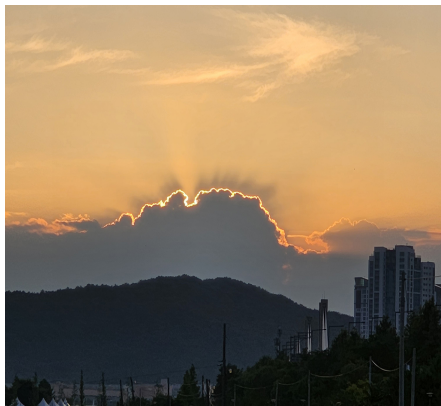
아름다운 산책길

요즘에는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여 6시 이후에 산책을 나선다. 한 시간 정도 용수천 강변을 걷는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저녁노을 지는 풍경이 참 멋지다. 그 풍경은 매일 변화무쌍하다. 흐린 날, 맑은 날, 비오는 날 다 다르다. 똑같은 날은 하루도 없다.

나는 힘들 때마다 내 젊은 시절 3년 동안 배를 탔던 때로 돌아가는 꿈을 꾀다. 배를 다시 타러 간다던가, 배 안에서 일을 하거나, 한번은 해적을 만나 창고에 숨어서 킬킬 떨었던 순간이 꿈에 생생하게 재방송(?) 되기도 했었다.

배를 타면서 힘들었던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브릿지에서 당직을 서며 매일 변화무쌍한 일출과 일몰 바다를 보며 ‘우아 멋지다!’를 연발했던 순간들...

용수천을 걸으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때 그 순간의 감성이 되살아났다.



대벌레

지리산 아래봉 올라가는데 표지판에 대벌레가 잔뜩 붙어있었다. 언 듯 보면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슬금슬금 움직인다.

대벌레는 푸른색 잎사귀에서는 몸을 푸른색으로 바꾸고 갈색 기둥에서는 갈색으로 바꾸는 카멜레온이다. 그런데 까만색 표지판에서는 몸을 까맣게 변신하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대벌레는 사람에게서는 딱히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데 나무 잎사귀를 녹즙처럼 빨아 먹어 고사시키기 때문에 ‘해충’이라고 한다. 지구촌 이상기후로 최근에 개체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는데 끈끈이트랩 같은 도구로 퇴치한다고 한다.

대벌레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어서 창조되었을 것이다. 단순히 잎사귀를 먹는 것만 가지고 해충이라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가장 무서운 해충은 온갖 잎사귀를 다 먹는 인간들 아닌가?



바구미

방바닥에 신기한 곤충이 엉금엉금 기어 다닌다.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니 ‘바구미’이다. 쌀을 훔쳐먹는 쌀벌레인데,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몸을 둥그랗게 말고 테구르르르르 구르면서 마치 쌀알인 척 한다. 안 속아 임마!

바구미는 쌀알 속을 파내고 거기에 알을 낳는다. 부화한 바구미는 쌀알을 파먹으며 자란다. 그래서 오래된 쌀을 손으로 잡아보면 손바닥에 밀가루 같은 하얀 가루가 묻는다. 하얀 쌀을 먹고 하얀 똥을 누어서 말하자면 손바닥에 하얀 똥가루가 묻는 것이다. 우엑!

바구미가 방바닥에 창궐할 정도면 지금 어딘가에 바구미의 아지트 역할을 하는 쌀자루가 있다는 뜻이다. 바구미가 먹은 쌀은 떡을 해도 맛이 없고 밥을 해도 역시 맛이 없다.

바구미가 방바닥에 창궐할 정도면 지금 어딘가에 바구미의 아지트 역할을 하는 쌀자루가 있다는 뜻이다. 바구미가 먹은 쌀은 떡을 해도 맛이 없고 밥을 해도 역시 맛이 없다.

바구미랑 쌀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는 없지...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710회 모악산(793m전북 완주) 2025.7.4.

▲제711회 깃대봉(394m 논산) 2025.7.12.

▲제712회 물한산(364m 논산) 2025.7.18

▲제713회 지리산 바래봉(1,165m 남원시) 2025.7.21.

철쭉필 때 가야 하는데 7월의 푸르른 지리산도 한번 보고 싶었다. 운봉 운지사까지 자가용으로 집에서 2시간 30분 걸렸다. 지난번 산행 때는 달궁마을에서 출발했는데 오늘은 운지사 입구에서 출발했다.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비 쏟아지기 전에 후딱 다녀오기로 했다. 정상까지 약 4.5km 의 길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르는 산이라 박석이 깔려 있어 그야말로 고속도로다. 하나도 힘들지 않게 술렁술렁 걷다 보니 정상이다.

정상에서 원근법을 이용하여 정상석 위에 올라간 사람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하늘이 캄캄해진다. 서둘러 후다다다닥 내려왔다. 다 내려올 때까지 다행히 비는 쏟아지지 않았다.

운봉에서 김치찌개로 점심을 먹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영웅

24 1165m



우리의 만남은 맛남 입니다~

①가는여름 붙잡느라 매미들이 요란하네

기승부리던 노염老炎 처서에 한풀 꺾였다
 여름내 날뛰던 모기 턱이 빠졌다
 흰 구름 끊어진 곳마다 높아진 푸른 산
 먼 길 나그네 또 한 굽이 넘어간다
 - 홍사성, 『내년에 사는 法』 (책만드는집, 2011)

처서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더위가 그친다(處暑)’입니다. ‘언제 시원해지나?’ 하고 기다리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처서입니다. 처서 무렵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밤낮 기온 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과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10년 전 8.15 광복절에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고 자유롭게 광복하신 어머니 산소에 삼형제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산소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자라서 무덤을 둘러싸 무덤 위로 하늘이 빼꼼~ 보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땅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볼 때, 어머니의 하늘은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당연히 육신은 이곳에서 흩어 되었지만, 그 영혼은 저 하늘 어딘가를 자유롭게 훨훨 날고 계실 것입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여름묵상 218쪽 17000원 -2025.8.8.일 출간
 95. 일상의 사랑 (시15) 210쪽 17000원 -2025.7.1.일 출간
 94. 만사록 3권-구원 304쪽 15000원 -2025.6.2.일 출간
 93. 신령한 법에 관한 200개의 글 220쪽(컬러)15,000원 4.18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89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5.7월 재정결산

2025년 7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영국 김경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김한빛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양은희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조정옥
지경희 한주환 감리회정릉 감리회정릉 새벽기도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28분이 1,26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사역 -인터넷신문 햇별같은이야기 2025.8.23일까지 8174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96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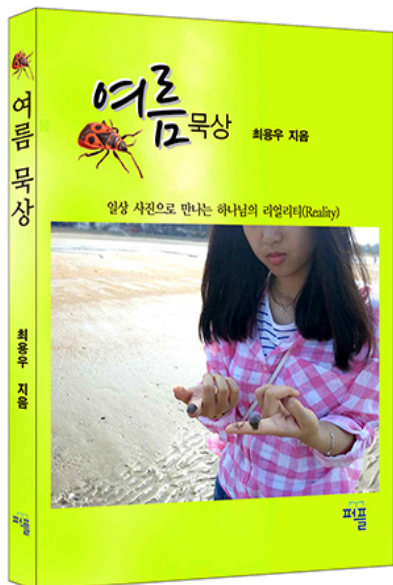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 문서2, 인터넷,북방선교2, 선교사, 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계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새로 나온 책**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권 봄 목상(판매중)
 > 2권 여름 목상(최신간!!)
 3권 가을 목상
 4권 겨울 목상 판매중)

최용우 사진 글
218쪽 17,000원(컬러) 퍼플

‘저는 마당이 있는 시골 단독 주택에 살기에 거미줄을 자주 봅니다. 거미는 처마 밑이나 나무 사이, 또는 창문에 걸쳐서 거미줄을 칩니다. 그들의 거미줄 짓기 신공을 보노라면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전율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햇살의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를 실제로 느껴보셨는지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과 풍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현실(reality of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은 “생명의 리얼리티”(reality of life)입니다.

아주 세심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나무에 관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헤르만 헷세에게서 보듯이 (『헤르만 헷세의 나무들』 참조) 일상의 여러 순간에 마주친 생명의 소소한 리얼리티를 구도적인 태도로 사진과 목상글로 묶어낸 이가 바로 최용우 님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 추천사를 대신하여 정용섭 (대구성서아카데미 원장)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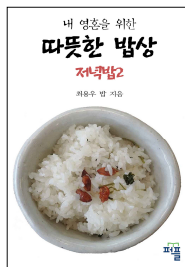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점심밥2

묵상은 깔대기와 같아서 단순히 그냥 흘러 보내기만 해도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 갑니다. 변화는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39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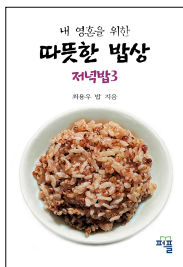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저녁밥1

어린이와도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신학적 교리적 조미로 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읽은 쉬운 말씀묵상 마태복음-마가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저녁밥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하기에 사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았습니다. 누가복음-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따뜻한 밥상-저녁밥3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알기만 해도 말씀의 밥을 자신의 말로만 들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아멘'을 할 수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7,000원 398쪽 퍼플



겨울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겨울 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13,900원 218쪽(컬러)퍼플



봄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봄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15,000원 218쪽(컬러)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스터(피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79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